

참된 성전회복의 주역 -복음으로 여는 학개-

학개 2:1-7, 고린도전서 3:10-16

정운돈 목사님

오늘은 학개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나누겠다. 시대마다 우리의 전쟁은 메이슨 전쟁이었다. 우리 캄넛트도 그런 영적 전쟁을 앞으로 맛닥뜨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전 회복이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전회복이라고 하면 다 비슷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다.

지난주 노회 목사님들과 중국 현장에 갔다. 비행기로 운남성(雲南省)에 갔는데, 네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옆에 무슬림 학생이 앉아 있으니 네 시간 동안 말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 결국 영접시켰다. 두 시간 대화를 하고 갔더니 두 시간 후에 도망가더라. (웃음) 그랬다가 제발로 다시 와서 또 메시지를 듣고 영접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도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중국은 57개 소수민족이 있다. 운남성 안에만 해도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다. 민족촌이 있어서 가봤는데, 정식 명칭이 민족촌이었다. 그런데 어떤 민족의 민족촌에는 교회가 있는 것이다. 묘족(苗族)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민족 200만 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팀 사역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날 호텔로 불려서 메시지를 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 자기들끼리 했지,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 분들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자기들이 삼자교회를 다니면서 신학도 하고 그랬지만, 한계에 부딪혀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하고 인사를 해 왔다. 진도자는 어디를 가든지 응답을 받는다. 캠프가 된다. 가기만 하면 응답이 된다. 가기만 하면 만남이 있다. 현장을 가 봤더니 대부분 우상에 쫓아 있었다. 높은 산이 있는데, 100미터 정도 되는 바위를 70여 명 되는 사람이 작업을 해서 길을 뚫었다. 거기에 등용문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손을 대면 합격한다 해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손을 대고 간다고 한다.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것들이 전부 우상이었다. 곳곳이 다 우상이었다. 참된 성전회복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었다. 어떤 곳은 불교 사원인데 전체를 동으로 만들었다. 그 안에 우상이 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 그 운동이 성전회복운동이다.

서론 : 학개서의 배경

(1)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지 16년 후인 BC 520년에 기록된 말씀이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것은 바사 왕 다리오였다. 학개 1:1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다리오 왕 제이던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냥 읽으면 별 의미도 안 보이겠지만, 약간 깊이 생각해 보면 의의한 부분이 있다. 무엇인가?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이다. 이스라엘은 언제 포로로 끌려갔나? 바벨론 때다. 세월이 지나서, 끌려간 지 몇 십 년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되었던 것이다. 나라가 바뀌었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은 거기 그대로 포로로 있는데, 그를 다스리는 강대국이 바뀌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원년에 포로 된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면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면서 보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그 후 16년이 지났는데도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독려했다. 이것이 학개의 내용이다.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이 5만 명이었다. 수십만 명이 끌려갔을 텐데, 성전 회복을 위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이 5만 명뿐이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남은 백성이라고 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성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성전 회복을 중단했다. 핑계를 대면서 안 하고 있었다. 사망자들이었는데 그랬다. 여러분, 뽀뽀하고 뽀뽀한 사람들 중에서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로 여러분이 왔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중직자가 안 되고, 지교회도 다락방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16년 동안 온 것이다. 남은 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참된 성전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예언자, 선지자를 왜 보내셨겠는가? 학개를 왜 보내셨겠는가? 하나님이 참다참다 못해서 보내신 것이다.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심방을 받으라고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은,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런 것이다. 구역장 교구장이 이야기해도 안 들으면 결국 담임목사님이 전화를 해야 한다. 미리 깨닫고 응답받은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란다. 알려줘야 아는 게 아니다. 마음이 있으면 다 하게 되어 있다. 새가족이 찬송을 너무 부르고 싶는데 잘 모르니까, 찬송가 전집 CD를 할부로 사서 배우고 듣더라.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줬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스케줄을 찾아보고 참여하더라.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으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하시기 바란다. 해의 놀러가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잘 하면서,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몰라서 힘들다' 하는데, 스스로 하시기를 축원한다.

(2) 성전건축이 중단된 때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유가 무엇인

가? 이스라엘이 성전건축과 회복이라는 천명, 소명, 사명을 망각하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 삶만 즐기는데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의 성곽은 다 회복했다. 성곽 짓는 것이 훨씬 어려운데 그것은 벌써 완성했다. 고레스 왕의 칙령도 와 있었다. 5만 명이라는 백성도 있었다. 돈도 있었다. 그런데 핑계를 대고 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1:4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板壁)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영적인 상태는 다 죽어간다. 성경도 안 읽고 찬양도 안 하는데 세상 음악은 그렇게 잘 듣는다. 선교지는 안 가면서 관광은 그렇게 잘 간다. 바쁘다면서 훈련은 안 받는데 술은 날마다 잘 드시더라. 영적인 상태는 죽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갔다면서 골프 치러는 잘 가더라. 판벽이라는 것을 두고 <바른성경>에서는 '벽을 장식했다'고 표현했다. 벽을 장식하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은 잘 즐기면서 영적인 것은 황폐해졌다. 학개 1:5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란다. 나의 영적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학개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성전 건축을 중단한 백성들에 대한 징계요, 둘째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 오는 축복이다.

1. 성전 중단에 따른 징계의 말씀

먼저 성전 중단에 따른 징계의 말씀부터 살펴보고도 하자. 하나님은 이것부터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이다.

(1) 학개 1:6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결국 이렇게 된다. 주일 빼먹고 십일조 안 하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해 보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나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많이 봤다. 대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대기업이 그 인생을 보장해 주던가. 중학교 나와도 치킨집, 대기업 나와도 치킨집을 한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 세상 일은 결국 별 게 아니다. 영원히 남은 영적인 일, 전도, 선교, 캠프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란다.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걸어간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흠족하지 못하며." 계속 마시 보라. 흠족한가? 다들 후회만 남더라.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며, 일꾼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영적인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하면 자손만대에 넘치는데, 하나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을 생각하면 열심히 먹는데도 늘 굶는 것 같다. 다 빠져나간다. 근절절약을 해 보라. 어느 날 큰 구멍이 나서 다 빠져나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보호가 되는 것이다.

(2) 학개 1:9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복음 안에 있으면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신다. 열심히 일하고 대단히 잘 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했더니 흑암이 꺾인 것이다. 일본 목사님은 한국에 오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것이다. 남산에서 서울을 보니 서울 곳곳에 십자가가 곳곳에 서 있으니 너무 좋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공동묘지 같다고 하는데, 똑같은 것을 봐도 그렇게 다르다. 곳곳에 교회가 설 때 흑암이 꺾이고 모든 부분이 살아난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다고 했다.

(3) 학개 1:10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더 그렇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되면 그게 저주 아닌가.

(4) 학개 1:11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많은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 갈등, 이념 갈등에 세대 갈등까지 일어났다. 한국 사람은 회한한 것을 잘 만들어낸다. 탄핵문제, 세월호 문제, 고령화문제 등 곳곳에 문제가 많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수천, 수만 명이 직장을 잃고 있다. 다른 나라와 계속 갈등을 하고 있다. 청년들은 실업 문제로, 결혼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어떤가? 학교가 다 무너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맞으면서 자랐는데도 건강하게 자랐는데,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다 빠져 있다. 강의력을 가 보면 10분 지나면 절반이 없어져 잔다. 옛날 같으면 뺨을 때리는데. (웃음) 지금 징계를 못 하니까 학교가 80% 무너져 버렸다. 꾸지람을 하지 못하는 시대, 선생님이 힘든 시대다. 아이들은 중독, 타락 문제에 빠져 있다. 담배피우는 중학생들이 그렇게 많다. 이게 열두 가지 재앙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면 해결되겠는가? 교육제도, 복지제도를 개선하면 되겠는가? 부패한 정치인, 판료를 몰아내면 되겠는가? 과학을 발전시키면 되겠는가? 우리는 학개서에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참된 성전이 건축되고 회복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언약하셨다. 세상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2.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받을 축복

학개서는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받을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

(1) 나를 찾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겠다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학개 2:4에, “그러나 여호와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이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 램넛트가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2)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4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혼자 있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신다.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은 다 사라졌지만, 성전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구약성경 하나만을 가지고도 지금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완전 복음을 회복한 우리는 세계를 살리고 3단체를 살리게 될 것을 믿는다.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현장을 정해야 하겠는가? 나는 이스라엘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까지 회복시키는 우리나라가 될 것을 믿는다.

(3) 말씀성취와 성령충만의 은혜를 약속하셨다. 학개 2:5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이다.” <바른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성취의 언약과 성령충만의 언약이다.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야 하겠다 마음을 먹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이다.

(4) 세계를 진동하는 응답을 약속하셨다. 학개 2:6에,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았다. 스마트폰이다. (웃음) 전 세계에서 삼성 휴대폰이 진동하지 않나. (웃음) 모든 분야를 진동시킬 줄 믿는다.

(5) 모든 나라를 움직일 것을 약속하셨다. 학개 2:7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얼마나 수출을 많이 했는가. 우리는 수출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아무 것도 없는 나라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석유를 수출하고 있지 않나.

(6) 경제적 축복도 약속하셨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회복할 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7) 나중에는 더 잘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다. 학개 2:9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과 후대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8) 평강의 언약도 약속하셨다.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평강이 아니다. 내가 이번에 평강을 경험했다. 노회에 조선족 목사님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큰 부자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 당시에 처형당하고, 가족은 큰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자기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까지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중국인 교회를 세웠다. 그 딸을 이는데, 함양의 램넛트지도자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가 자녀 학비를 못 냈다고 한다. 우리 다락방은 돈 내면 훈련이든 집회든 절대 갈 수 없는데, 이 목사님 딸은 1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딸을 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 평안했다. 1년 동안 자녀 학비를 안 냈는데 나오는 평안이다. 그게 진짜 평안이다. (웃음) 절반만이라도 내 달라고 했는데 돈 없어서 하나도 못 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까지 지도자학교에 보냈다. 아들 학비는 냈습니까 했더니 안 냈다고 한다. (웃음) 절반이라도 내 달라고 부탁해 온다고 한다. 그런데 그분은 앞으로도 안 낼 것 같다. (웃음)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 평안할 것 같다. (웃음) 예배당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중국 가는 중간에 연락이 와서, 다음 주부터는 장소 대어를 안 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통보를 받고, 새로 예배드릴 장소를 못 구한 상태에서 중국을 같이 다녀왔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교회로 오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한인교회들이 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당을 오후에 빌려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후에 빌려서 중국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 다문화가 다 와서 예배드리는 성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시간이 안 맞으면 새벽에 와서 드리면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

(9) 언제부터인가? 학개 2:19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10) 우리를 대적하는 강대국의 지도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했다. 학개 2:22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3.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과 성전 회복의 길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재건하고 회복해야

하겠는가?

(1) 참된 성전회복의 의미부터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 ① 참된 성전회복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 ② 참된 성전회복이란, 모든 지역과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스도 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다락방, 미션 홈, 지교회 운동이다. 이것이 참된 성전회복 운동이다.
- ③ 참된 성전회복운동이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적인 문화운동, 산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주에 있을 산업인대회다. 여러분이 산업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2의 RUTC운동이다.

(2) 그러면 어떤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축해야 하겠는가?

- ①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축해야 한다.
- ② 로컬(Local) 교회를 회복하고 재건축해야 한다. 구역을 회복해야 한다. 각 부서, 모든 부서가 회복되어야 한다. 찬양대, 모든 시스템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게 로컬이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한다. 심방을 다 받아라. 심방이 다 회복되어야 한다.
- ③ 파라(Para)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 모든 훈련을 회복해야 한다. 지교회, 미션 홈, 현장캠프를 다 회복해야 한다. 그랬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리스도로 결론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3)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가지 교회를 회복하고 건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62가지 포럼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체화해야 한다. 막연히 이러저러 하다 아무 것도 안 된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실천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야 한다. 팀 형성을 해야 한다.

- ① 그 내용 중 하나가 21가지 전도자의 삶이다.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하고 있지 않나? 이번 주에 또 기도할 것인데, 고난주간에는 다 새벽기도 나와야 한다. 1년 동안 안 나와도 이번 주에는 나와야 한다. 멀리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도 참여하고, 그래서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성전, 나 자신의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
- ② 그리고 현장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을 하려면 9가지 배려를 배워야 한다.
- ③ 20가지 성경적 전도방법을 배워야 한다.
- ④ 7가지 영적 서밋의 교육으로 후대를 살려야 한다.
- ⑤ 5가지 기도가 가장 중요한 key다. 그 기도가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 말씀의 흐름을 타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 답을 얻고 치유하는 기도, 말씀과 균형이 되는 기도다. 이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이 새로워질 것을 믿는다.

결론 : 성전 회복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렇다면 이런 성전회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1) 237개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 나라 숫자에 대한 통계는 다르더라도, 국가의 개념이 다 다르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 코카콜라가 들어간 나라 등 기준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237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 축속이 연결되는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2) 램넛트들이 마음껏 언약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교회당을 지어야 한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흡연실도 만들었더라. 불신자가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해서 담배가 바로 끊어지지 않지 않나? 흡연실 만들어놓으면 지역의 흡연자들이 교회에 많이 오지 않겠는가. 거기 성경구절 붙여놓고 (웃음) 램넛트들이 오도록 코인노래방도 만들자. 조건을 달고 몇 곡 부르고 나면 찬송 한 장 부르기. (웃음) 지금 램넛트들이 정말 갈 곳이 없지 않다. 세상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제2의 RUTC가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와 건물을 지어야 한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전 세계에 5천 개 RUTC를 세우도록. 복지, 문화,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놀이공원도 만들고, 댄스 연습실도 만들고 이번에 중국으로 파송되는 현지 자매가 제2 RUTC의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

(3) 그러면 이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구체적인 팀 형성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포럼이 이루어져야 한다. 62가지를 두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포럼해야 한다. 미래를 놓고, 달란트를 놓고 포럼해야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약간 구체적으로 하면 된다. 이 시대의 문제와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목표를 두고, 참된 건축과 성전회복 운동을 통해서 그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과 후대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연락하고 부족한데 이 놀라운 축복과 미션을 저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신앙과 믿음, 복음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 모든 제도, 모든 시스템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 교회를 회복하는 훈련 속으로 뛰어들어서 세계를 살리도록, 로컬과 파라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